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 WSJ: 미 금리와 연준: 올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것은?
- FinancialYahoo: 6월 미 주택 가격, 월간 단위로 하락

[미국 금융]

- Bloomberg: 미 주식 변동성 보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앞두고

[미국 대선]

- Economist: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경선에 활력을 불어 넣다

[에너지]

- Bloomberg: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내년 원유 하락 예상... 공급 증가
- Bloomberg: 리비아의 원유 공급 불안 속에 3일간 랠리후 안정세

[항공업계]

- Bloomberg: 중국 항공사들, 주요 국제 노선에서 경제사들 '제압'

[중국 경제]

- Bloomberg: 중국 제철소와 원유 정제기업들 손실 악화
- Bloomberg: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국 산업 생산 기업 이익 증가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CNBC: 소시지 수요 증가는 경제 위기 신호
- CNNBusiness: 중국 가려던 외국 항공사들... 기대 좌절
- CNNBusiness: 애플, 9월 9일 1세대 AI 아이폰 선보일 듯
- NYT: FTA, "크로커 250억불 합병은 쇼핑객 나쁜 소식"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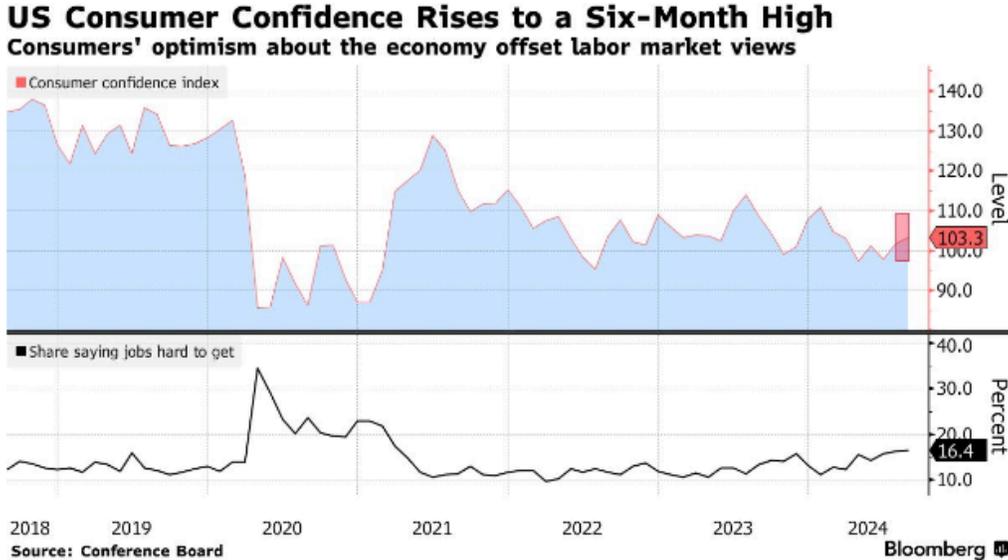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 Confidence Rises on Views of Economy, Inflation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미 소비자신뢰지수 상승

- 미 경제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어서 노동 시장에 대한 우려를 상쇄한 가운데 8월 미 소비자신뢰지수가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컨퍼런스 보드가 오늘 화요일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는 7월에 101.9로 상향 조정된 이후에도 8월에 103.3으로 상승했다. 블룸버그의 전문가 예상치를 넘어섰다.

- 향후 6개월간의 기대 지수도 8월 들어 82.5로 1년간 최고치를 보였으며 현재 여건 지수도 상승했다.
-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신뢰 지수 상승과 소비자의 계속된 지출 전망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생활비 상승과 일자리 둔화 때문에 소비자 신뢰지수는 팬데믹 때 수준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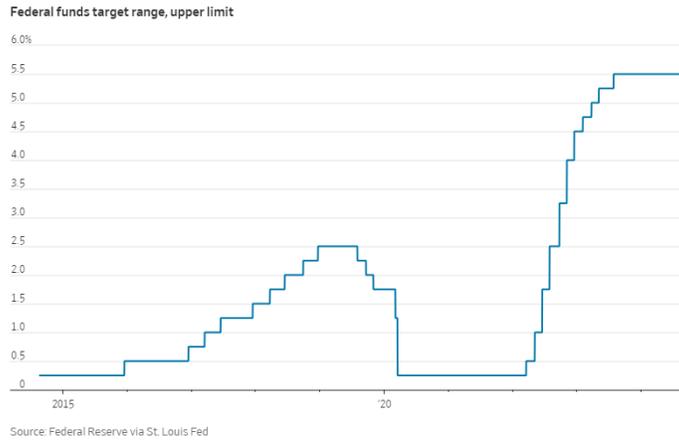


Bloomberg 기사

WSJ: Interest Rates and the Fed: What to Expect Through the Rest of 2024

미 금리와 연준: 올해 하반기에 예상되는 것은?

- 연준은 올해 3차례의 회의를 남겨놓고 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완화 정책의 시점이 왔다고 지난 금요일 언급했다. 투자자들은 9월에 처음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의 5.25%~5.5%에서 0.25%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의견이 광범위하고 올해 말까지 계속 금리 완화 정책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 아래 3차례 회서의 금리 예측은 CME Fed Watch에 바탕을 둔 예상이다.
- 선물 가격에 따르면 9월 18일에 25%포인트 인하할 확률이 거의 72%라는 것.
- 11월 7일 미팅 후에는 금리가 4.75%~5% 범위로 낮춰 질 가능성이 50%다. '0.25%' 또는 '0.5%보다 인하율'이 낮을 확률도 있다.
- 12월 18일에는 4.25%~4.5%로 낮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가능성도 있다.



WSJ 기사

FinancialYahoo: US house prices fall on monthly basis in June
6월 미 주택 가격, 월간 단위로 하락

- 6월 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해 거의 1년간 상승세가 가장 낮았다. 높은 모기로 구매 희망자에게 부담이 되고 높은 주택 재고 때문이었다.
- 오늘 화요일 연방주택재정국(FHFA)에 따르면 주택 가격은 5월에 변동이었고 6월 들어 월간 베이스로 0.1% 하락했다. 지난 6월까지 1년 동안은 5.1% 상승해 지난 2023년 7월 이래 상승세가 가장 낮았다. 5월에는 연간 상승률이 5.9%로 상향 조정됐다.
- 집값은 2분기에 1분기 비교해 0.9% 상승했고 작년 2분기와 올해 2분기 비교해서는 5.7% 상승했다.

FinancialYahoo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Investors on Edge Before Nvidia Earnings, US Data: Markets Wrap
미 주식 변동성 보여...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앞두고

- 주식이 거의 사상 최고치에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인공지능이 시장에 계속 성과를 보여줄지에 대해 주목하면서 주식시장에 큰 파급 영향을 줄 내일 수요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 엔비디아가 월가의 높은 예상치에 부합될 수 있는지 투자자들은 지켜보고 있다. 엔비디아는 메그니피센트 7에 있는 회사로서 올해 나스닥 100 상승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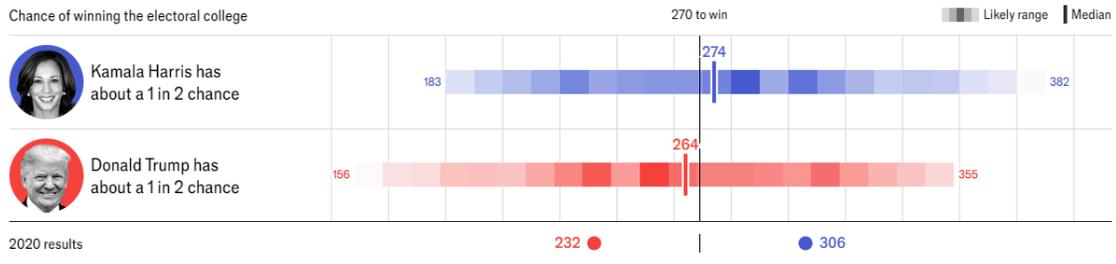
- 수요일 마감 직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게 되는데 오션 시장의 트레이딩은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후에 9%의 상승일지 하락일지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이 주식은 1백50% 상승했다.

Bloomberg 기사

[미국 대선]

Kamala Harris has put the Democrats back in the race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경선에 활력을 불어 넣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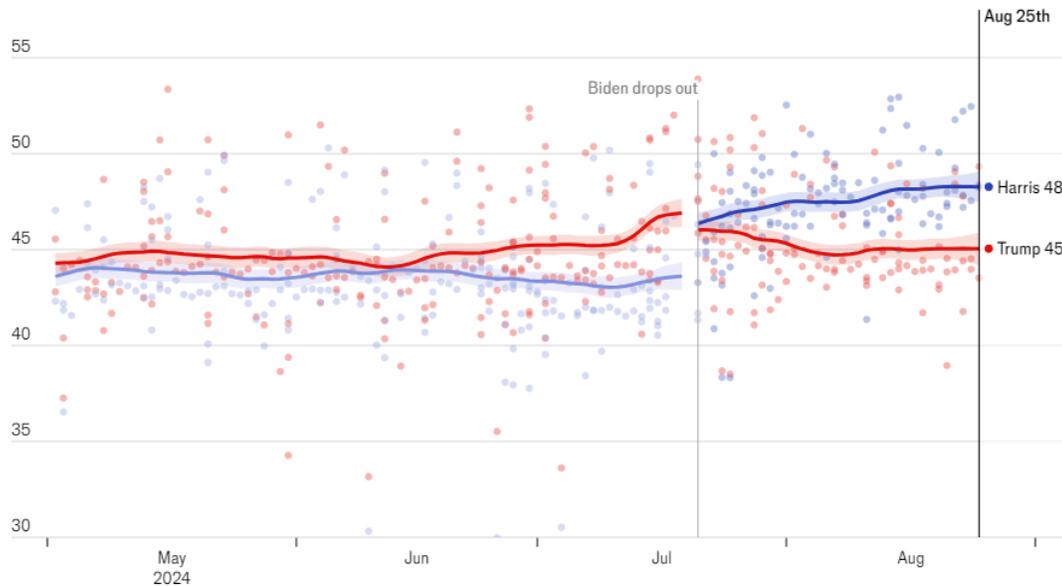
- 카멀라 해리스 당선 가능성 60%, 도널드 트럼프 당선 가능성 40%



Our model is updated every day and combines state and national polls with economic indicators to predict the election results across the country. To work out the probable electoral-vote totals, we run over 10,000 simulations of the election. The chance of a tie in the electoral college is less than 1 in 100.

- 전국 여론조사. 단, 국민 투표 승리가 곧 대선 승리는 아니다.

Who's ahead in the national polls?



We keep a running average of national head-to-head polls, which gives a sense of how the race is progressing. But winning the national popular vote is not enough to win the presidency.

- 대부분의 주는 하나의 정당을 지지한다. 다음 7개 주(93개 선거인단)는 주요 경합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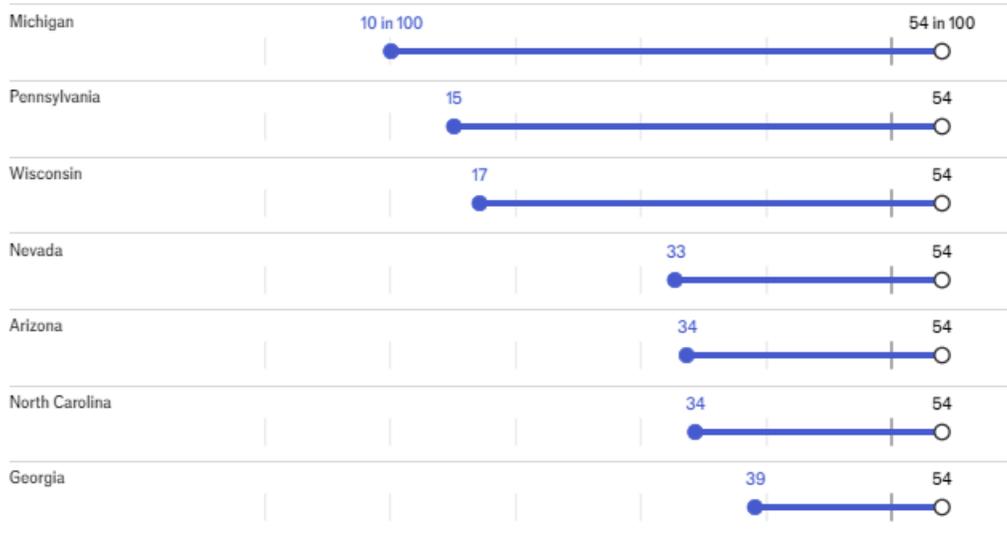
- 2016년에는 트럼프가 네바다를 제외한 다른 6개 주에서, 2020년에는 바이든이 노스캐롤라이나를 제외한 다른 6개 주에서 승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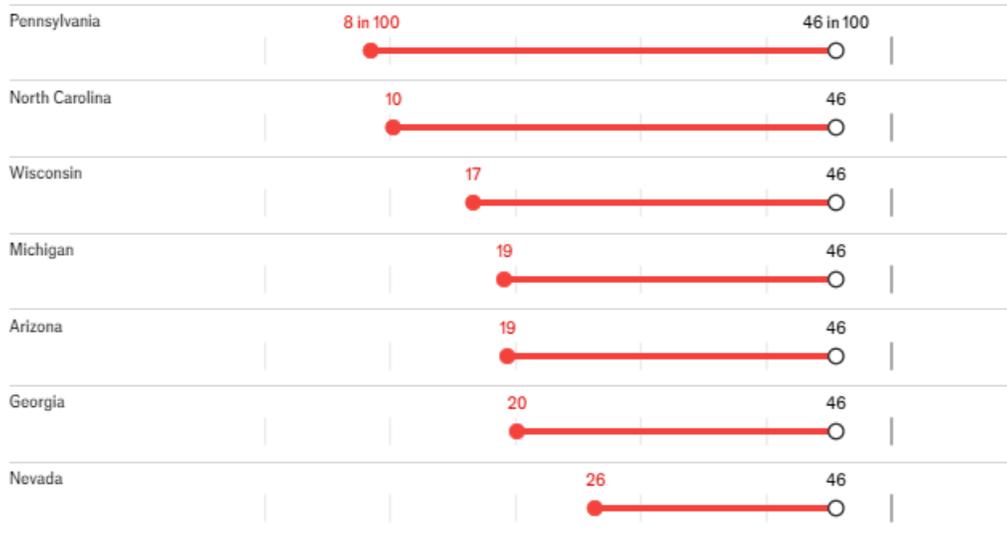
- 모든 주가 똑같이 중요하지 않다. 주마다 특정 후보에 치우쳐져 있다.
- 서로 비슷한 주도 있다. 미시간 주에서 이긴 후보는 위스콘신 주에서도 이길 확률이 높다.
- 아래는 각 후보가 해당 주에서 질 경우 당선 확률을 계산한 것이다.

○ Overall chance of winning ● Without this state

Harris witho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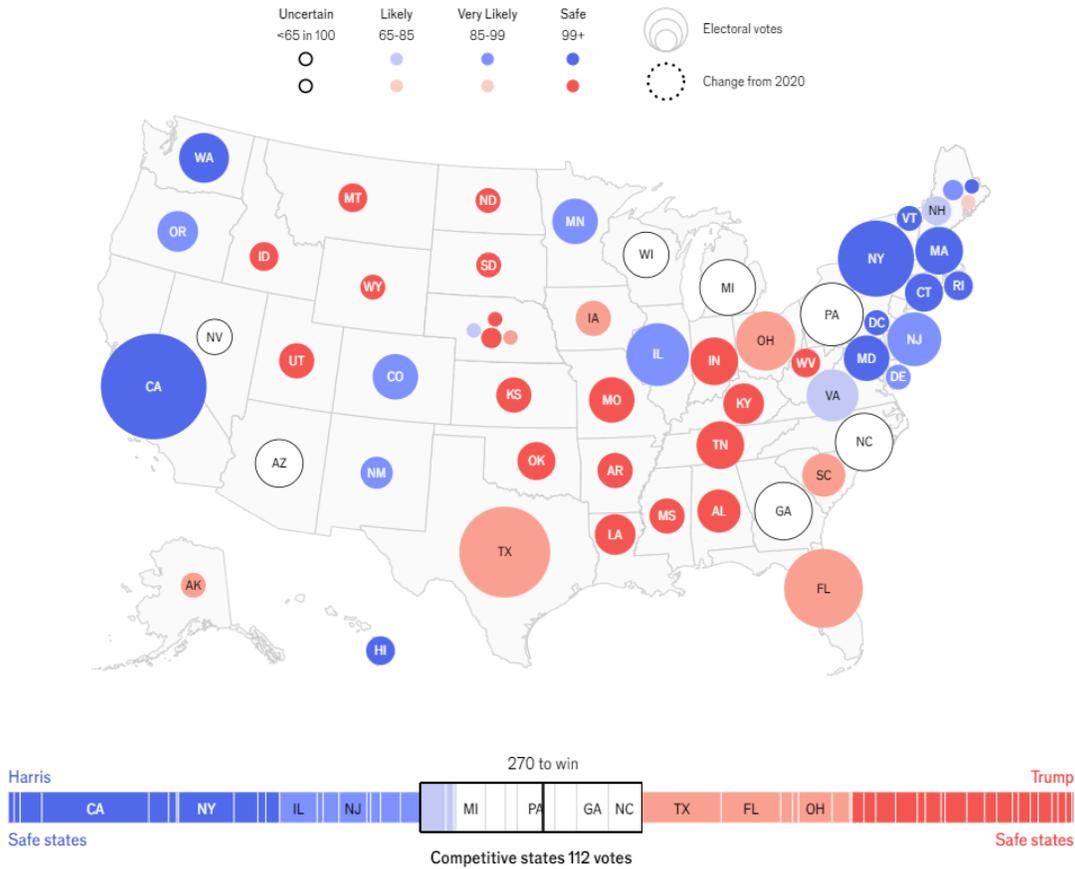


Trump without



- 아래는 각 주의 승리 가능성을 보여준다.

Who is likely to win in each state?



Economist 기사

[에너지]

Bloomberg: Goldman Cuts Oil Outlook Below \$80 as OPEC+ Risks Send Chill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내년 원유 하락 예상... 공급 증가

- 내년도 원유 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예상하고 있다. OPEC+ 등의 공급이 증가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이 은행들은 내년도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평균 가격이 배럴당 80불 아래일 것으로 현재 예측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수정치로 77%로 예상하고 있고, 모건스탠리는 75불에서 78불로 예측하고 있다. 공급이 증가해 가격이 향후 12개월 동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Top Wall Street Banks Are Souring on Oil Goldman, Morgan Stanley see Brent averaging under \$80 next year



Bloomberg 기사

Bloomberg: Oil Steadies After Three-Day Rally as Libya Adds to Supply Wo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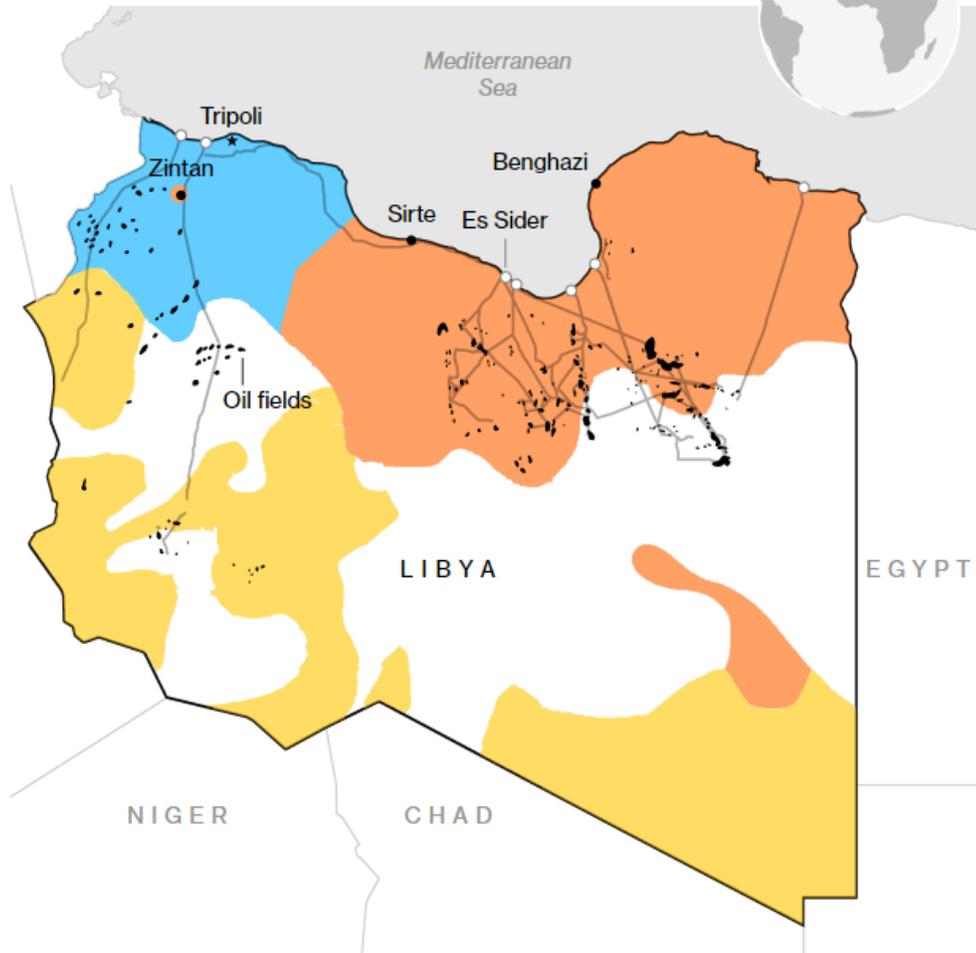
리비아의 원유 공급 불안 속에 3일간 랠리 후 안정세

- 리비아의 원유 공급 중단 위협이 불안한 수요 전망으로 상쇄되고 있는 가운데 원유는 3일간 랠리 후에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 브렌트유는 지난 4월 이후 3일간의 랠리로 7% 상승한 이래 현재 배럴 당 8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웨스트 텍사스 중질유는 거의 77달러에 머물고 있다.
- 리비아의 동부지역 원유 수출이 중단될 리스크가 있는 가운데 최근 리비아의 불안한 행동 얼마나 갈지는 최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력의 성공 여부에 달렸다.

Libya's Oil Network

OPEC nation has Africa's biggest crude reserves

- Libyan National Army, local allies
- Government of National Unity, local allies
- Local forces; affiliation varies
- Port
- Pipeline



Sourc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governmental control); US Department of Energy Global Oil & Gas Features Database (ports, pipelines, oil fields)
 Note: Areas of governmental control are approximate

Bloomberg 기사

[항공업계]

Bloomberg: Chinese Airlines Elbow Foreign Rivals Out of Major International Rou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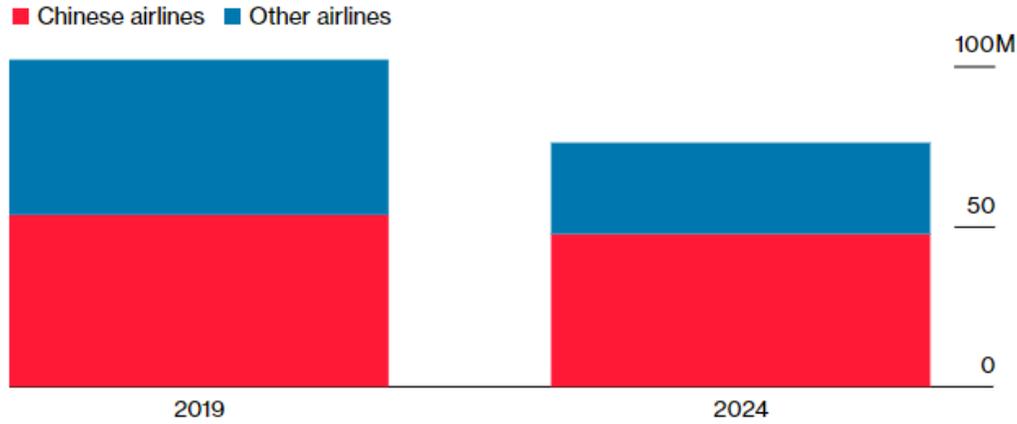
중국 항공사들, 주요 국제노선에서 경제사들 ‘제압’

- 지난 2019년으로 돌아가면 국제 항공 여행을 위한 중국의 광범위한 시장은 중국 항공사들과 다른 국가 항공사들과 양분되어 있었다.
- 그런데 5년이 지난 후에 중국의 대형 항공사들은 다른 경쟁 항공사들을 제치고 중국으로 향하는 항공 여행의 점유율을 크게 차지했다.

- China Southern Airlines, China Eastern Airlines, Air China 항공사들은 중국 정부의 경제 회복과 글로벌 경제력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팬데믹 당시의 최저치의 해외 노선을 빠르게 복원 시켰다. 이들 항공사들은 본토로 향하는 노선 좌석 공급의 63%를 올해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9년 이래 10%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Chinese Airlines Are Squeezing Out the Competition

Scheduled seat capacity on flights to China



Source: Cirium data analyzed by Bloomberg
 Note: Data updated as of Aug. 22 for full year 2019 and 2024.

Bloomberg 기사

[자동차]

Bloomberg: Losses Worsen for China's Steel Mills and Crude Oil Refiners

중국 제철소와 원유 정제기업들 손실 악화

- 지난달 중국 제철소 손실이 다시 심해지면서 추가 감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화요일 중국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첫 7개월 동안 세계 최대 철강 산업인 중국의 누적 손실이 3억9300만불에 달했다. 제철소와 원유 정제업체는 올해 중국에서 가장 수익성이 낮은 기업이다.
- 중국 정부는 위기에 대응해 신규 철강 공장 승인을 중단했다. 한편 여전히 중국 부동산 문제는 시장 악화의 원인이며, 무역 조치로 인해 수출도 위협받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China's Industrial Profits Climb Even as Warning Signs Flash

위험 신호에도 불구하고, 중국 산업 생산 기업 이익 증가

- 7월 중국 산업계 기업 이익은 5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중국 통계국은 화요일 중국 대기업 산업 이익이 올해 첫 7개월 동안 전년 대비 3.6% 증가한 5750억불을 기록했고, 이번 달엔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 무역 분쟁과 새로운 관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한 수출이 산업 이익 회복을 이끌고 있다. NBS 분석가 Yu Weining은 “하이테크 제조업과 장비 제조업체의 수익 증가가 올해 수익 증가를 이끌고 있다. 소비재 업체 수출도 지속해서 증가했고, 내수도 꾸준히 회복 중이다.”라고 말했다. Pantheon 거시경제학 이코노미스트들은 지난달 장비 및 소비재 제조 부문이 전체 산업 이익의 약 5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Bloomberg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CNBC: Increased sausage demand could be worrying signal on the economy

소시지 수요 증가는 경제 위기 신호

- 소시지 수요 증가는 소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댈러스 연방 준비은행에 따르면 소시지 카테고리에서 완만한 성장이 있었는데, 이 카테고리는 경제가 약화될 때 성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발표했다.
- 식료품 가격은 여전히 소비자들의 최우선 관심사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 제품을 선택한다. 그리고 소시지는 고가의 단백질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대체품이다.
- 팬데믹 이후 저소득층의 소비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대형 레스토랑 체인과 식품 제조업체들은 날씨와 비용 상승 등의 이유로 농업 전반이 타격을 받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CNBC 기사

CNN Business: Western airlines were excited about returning to China after Covid. But not anymore

중국 가려던 외국 항공사들... 기대 좌절

- 1년 전, 중국이 코로나19 제한 조치 끝에 다시 국경을 개방하자 외국 항공사들이 중국 시장으로 복귀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다르다. 항공 업계 분석가들은 중국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항공편을 줄이고 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영향이 있다. 전쟁 몇 주 전 중국과 러시아가 맺은 파트너십 덕분에 전쟁 이후에도 중국 항공사들은 러시아 영공을 이용했

다. 하지만 외국 항공사들은 안전 문제로 러시아 영공을 우회했고, 이는 비용과 비행시간을 증가시켰다.

- Endau Analytics 창립자 Shukor Yusof는 “항공 산업이 글로벌 산업이기 때문에 미중 갈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중국은 국내 항공사 이용을 장려하면서도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 미국 항공사들은 중국 서비스 재개를 연기했다. 항공 분석 회사 Cirium에 따르면 현재 중국 항공사는 주당 최대 50편의 미국 왕복 항공편을 운영하지만, 미국 항공사의 중국행 서비스는 35편의 항공편만 운영되고 있다.

CNNBusiness 기사

CNN Business: Apple is expected to debut the first generative AI iPhone at its September 9 event **애플, 9월 9일 1세대 AI 아이폰 선보일 듯**

- 9월 9일 일요일, 애플은 “It’s Glowtime”이라는 주제로 특별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벤트는 오전 10시(태평양 표준시) 애플 파크 스티브 잡스 극장에서 열리며 온라인으로 스트리밍된다.
- 지난 6월, 애플은 연례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아이폰의 다양한 생성형 AI 기능을 발표했다. 곧 출시될 아이폰16은 애플의 1세대 AI 기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애플은 ChatGPT의 개발사 OpenAI와의 파트너십을 발표했다. 분석가들은 애플 인공지능이 애플의 가상 비서 Siri를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 이 출시가 불확실한 경제 상황과 경쟁 심화로 중국 내 판매량이 급감한 아이폰의 궤도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사이다. 가격에 대해 CFRA Research 기술 분석가 Angelo Zino는 “크게 오르지 않겠지만, AI기능이 포함되면 전반적으로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CNNBusiness 기사

NYT: Kroger’s Nearly \$25 Billion Merger Is Bad for Shoppers, F.T.C. Says **FTA, “크로커 250억불 합병은 쇼핑객 나쁜 소식”**

-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두 곳의 합병 결정 재판이 월요일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열렸다. 이번 합병이 허용되면 크로커와 앨버트산은 미국 식료품 판매 약 13%를 차지한다. 소송은 3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높은 식료품 가격은 미국 대선의 주요 쟁점이다.
-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경쟁이 줄어들면 크로커가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 소비자 옹호 단체, 정치인들도 여기에 동의했다. 크로커는 공급업체와의 영향력 강화, 소매업체와 경쟁 개선을 말했다.

- 연방법원에서는 가치분 신청 심리가 진행 중이다. Nelson 판사가 연방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주면 합병이 차단된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번 합병이 경쟁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 크로거의 변호사 Matthew는 “이미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소매업체와 코스트코와 같은 대량 소매업체가 광범위하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며, 따라서 합병이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대형 업체와의 경쟁이 크로거가 합병을 정당화하는 주요 근거이다.

NYT 기사

연준 목표 '물가 안정'→'고용시장 안정'...금리인하 속도 '고심' 느리면 경기침체, 빠르면 인플레이 딜레마...고용지표에 달려 주요국 정책전환에 글로벌 경제는 변동성 커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난주 제롬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을 통해 최우선 정책과제를 '물가 안정'에서 '고용시장 안정'으로 바꾸었다.

이제 이 목표를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속도로 내려야 경제가 별 탈 없이 굴러갈지가 관심이다.

천천히 할 경우 경기침체가 나올 수 있고, 빠르게 내리자니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